

## 04-1. 유리치은이식술을 이용한 임플란트 주위 각화치은 증대

봉국현\*, 김옥수, 김영준, 정연주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치주과학교실

### 연구배경

임플란트 주위 조직에서 적절한 폭의 부착치은의 필요성과 장기적인 생물학적인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통된 의견이 부족하며 논란의 여지가 있다. Berglundh 등(1991)에 의하면, 임플란트에 인접한 치밀한 결합조직은 조직학적으로 교원질이 풍부하지만 세포의 수는 적은 반흔 같은 조직이라고 하였고, Silverstein(1994)은 적절한 부착치은이 존재하지 않으면 가동성 변연조직에 의해 치태조절이 부적절하게 되어 임플란트 주위염과 임플란트 주위 치조골 소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임플란트 주위에 적절한 양의 부착치은은 치은퇴축을 예방하고 결합조직 및 골유착의 높이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음식물의 침착을 최소화하여 임플란트에 대한 자정작용을 향상시키고 치태 조절의 용이성과 유지 관리의 편의성을 제공한다.

이번 임상 증례에서는 각화치은이 부족하여 부착치은의 증대가 필요한 부위에서 임플란트 이차 수술 시와 최종 보철물 수복 후 유지기에 유리치은 이식술을 이용한 부착치은 증대술을 시행한 후 경과 관찰 중인 4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 연구재료 및 방법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치주과에 내원한 환자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임플란트 식립 후 2차 수술 시 두 증례와 보철 종료 후 유지기 단계에서 부착치은이 부족한 두 환자에서 부착치은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구개측 유리치은을 이식하였다. 유리치은 이식술 후 각각 5~18개월간의 추적관찰을 시행하였으며 부착치은의 증가 여부, 임플란트 주위 조직의 반응, 치은퇴축 등을 관찰하였다.

### 연구결과

시술 후 모든 증례에서 부종 및 그 외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적절한 폭의 부착치은이 획득되었고 추적관찰 기간 동안 임플란트 주위 조직의 염증 반응 없이 잘 유지되었다.

### 결론

임플란트 주위의 부착치은 증가를 위한 유리치은 이식술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예지성 있는 술식임을 알 수 있다. 장기적인 추적관찰을 통해 이식된 부착치은의 장기간의 안정성과 임플란트 주위 조직의 반응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